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타 분야에서 일하는 기악 전공자를 중심으로 -*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Transitions of Music Majors: Focusing on Instrumental Majors Working in Non-music Fields

송민희** · 김남희***

Minhee Song · Namhee Kim

초록 본 연구는 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악을 전공한 11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이 갖는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주자의 삶을 포기한 후 다른 길을 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음악 전공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 과정과 경력전환 이유, 경력전환 경험의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음대 재학생들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시사하는 바와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음악 전공자, 진로, 경력전환, 전환학습,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music majors' career transitions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from an adult learning perspectiv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research participants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nature of their experiences. After giving up a career as music performer, the research participants started a new career in other fields. This study revealed the meaning and nature of participants' career transition process, motivations, and experiences. It suggested revisiting vocational career education for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music majors, career transitions, transformative learning, phenomenological study

* This article is an excerpt from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First author, E-mail: minhee.song@gmail.com

Researcher, School Mental Health Resource and Research Center, 3F, 2075, Nambusunhwan-ro, Dongjak-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nh@ewha.ac.kr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I. 서론

급속한 사회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 등을 통한 경력의 전환은 개인의 경력 전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력전환(Career transition)은 개인의 주도적이고 다변적인 경력 구성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이 되고 있다. 경력전환의 개념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이직이나 직업 변화 등 개인의 선택적 경력 행위로 간주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직업 환경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일상적인 현상인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주체적인 경력 개발 양상을 보여주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Kim & Jin, 2013). 이는 다시 말해, 새로운 직업을 통해 일과 삶의 의미나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Jun & Son, 2014). 또한 경력전환은 개인이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역할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 또는 현재의 역할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 설정을 의미하는 것으로(Louis, 1980),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경력의 개념이 변화하고 경력을 구성하는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음악 전공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전공을 선택하고 실기 준비를 하여 입학하기 때문에 전공분야에 투자한 시간이 길고 타전공에 비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성이 높지만(Hong, 2018), 진로와 관련한 선택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Lee, 2006). 경영학이나 공학과 같이 비교적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와는 달리, 음대 재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일반적인 직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타분야 취업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Choo, 2019; Min & Lee, 2020). 실제로 서울대학교 통계(2019)에서도 예체능 계열 중 음악대학의 취업률은 31%로, 경영대학의 취업률 8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 대학의 전공 교육은 연주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위주로 진행되지만, 졸업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 연주자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공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도 전문 연주자의 길로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임에도(Choo & Choi, 2018; Jung, 2016; Jung & Choi, 2014) 음악 전공자들 스스로는 물론 대학, 관련 업계에서 이들의 진로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정환호(Jung, 2020)는 이들의 제한적인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인적인 접근에

서 벗어나 교과과정 및 음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악 전공생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음대에 재학 중인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음대의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이 졸업 후 어떤 경력을 갖는지에 대해 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달리 음악 전공을 목표로 정했던 중·고등학생부터 졸업 후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음악 대학 졸업생들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Choo,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와 과정이 다른 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음악 전공자들이 전문 연주자나 음악 관련 직무가 아닌 다른 분야로의 경력전환을 선택한 음악 전공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는 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음악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 연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거쳐 다른 분야직무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 이들만이 갖는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력전환을 했던 과정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진로교육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전공자들이 타 분야로 경력전환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이 음대 재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경력전환과 전환학습이론

경력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Hall, 1976). 즉 개인이 일생 동안 학업, 가정, 직업 등의 주요한 역할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력전환의 의미는 직장을 옮기거나 직무를 바꾸는 행위는 물론, 광의의 개념에서 인생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의 양상을 바꾸는 행위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Choi & Kil, 2012). 개인이 평생직장을 가졌던 과거의 경력 환경에 비하여 오늘날 개인은 하나의 경력보다는 다양한 경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경력 환경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경력전환은 일종의 경력적응 활동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주체적 경력 개발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Kim & Jin, 2013).

또한 경력전환은 직무 이동, 직업전환, 진로전환 등 국내 문헌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국외 문헌에서는 career transition, career change, career switch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Shin, 2018). 사회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해 경력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경력 전환의 개념도 개인이 직업이나 직종을 바꾸는 것에서 확장되어 일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등의 주관적인 상태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동안의 경력전환 개념을 전통적인 맥락에서 이직이나 직업 변화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보고 연구해 왔다면, 사회 환경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이제는 일상적이면서도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의지적 활동으로 해석하여 주체성을 강조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Kim & Jin, 2013).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을 설명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경력전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학습이론이다. 전환학습이론은 성인의 학습에 있어 지식을 축적하는 양적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는 질적인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Chang, 2011). 전환학습이론 관점에서 메지로우(Mezirow, 1981)는 학습이란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며, 전환학습이란 경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반성, 반추 등을 통해 학습자가 관점이나 의식을 재형성하는 학습이라고 밝혔다. 전환학습은 개인이 위기로 인식되는 결정적 사건과 같은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ed dilemma)’에 처하면서 기존의 신념, 태도, 의미관점 등이 보다 긍정적이고 분별력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의미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Jeon & Lee, 2017). 또한 케건(Kegan, 2009)은 인지발달의 관점에서, 전환학습이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며 모양(Form)이나 틀 자체를 변화시켜 재구조화(Transformativ)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전환학습의 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특정한 의미를 구조화하게 한 자신의 가정과 신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획득하게 된 새로운 의미를 검증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생성된 인식의 전환은 성인학습자에게 ‘앎’의 방식으로 표현되며, 경험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활동인 ‘의미형성’ 과정, 의미를 형성하면서 모양까지도 바꾸는 ‘의미형성의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Mezirow, 2000). 메지로우(Mezirow, 2000)는 전환학습이 성인기에

일어나는 특별한 종류의 학습이며 고착화되어 있거나 협소한, 또는 문제가 있는 가정과 기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이 의미관점 뿌리에 존재하는 전제(Presupposition)를 명확히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관점 전환은 삶의 전제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왜 제한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알아가는 과정(Mezirow, 1991)이며, 이를 통해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삶의 전제를 재평가하고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환학습의 핵심요소는 딜레마적 경험, 비판적 성찰, 이성적 담론이다(Mezirow, 2000). 첫째, 딜레마적 경험은 개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사고나 관점, 신념체계 등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경험이나 현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가리키는 의미체계(Meaning schemes)와 경험이나 현상에 있어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을 틀로 하여, 개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한다(Lee, 2020). 딜레마적 경험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구조(Meaning structure)를 만드는 전환의 첫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성찰은 앞서 발생한 딜레마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 과정이다. 이는 경험에 이어진 이성적인 사고의 집합체로 볼 수 있으며, 경험 전체를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인식의 과정이다(Jung, 2009). 메지로우(Mezirow, 1991)는 비판적 성찰을 ‘무엇’과 관련된 내용 성찰, ‘어떻게’와 관련된 과정 성찰, ‘왜’와 관련된 전제 성찰 등 세 가지로 상세히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이성적 담론은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Mezirow, 2000). 이는 두 사람 뿐 아니라 집단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하고, 해석, 신념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인 태도로 진행되는 대화이며(Lee, 2020), 사회적 조건, 역사적 배경, 성향 등에 따라 소통 방식이나 해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경력전환 과정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해외의 경우 2000년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차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인의 생애 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의 퇴직 후 전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Han & Lim, 2016; Jun & Son, 2014; Kim & Jin, 2013; Lee & Ryu, 2017; Wee & Lee, 2015)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 및 정책 마련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향후 그 수와 종류의 다양함이 요구된다. 또한 특정 직군에 대한 경력전환 연구들이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비서직 종사자(Kim & Na, 2013; Lee & Park, 2012), 체육인(Park & Lee, 2011; Park & Won, 2014; Choi, 2014),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Yang & Jyung, 2011)의 경력전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명하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이직률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경력전환을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위한 노력 및 보편적인 현상(Green, Hemmings, & Green, 2007)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미와 길혜지(Choi & Kil, 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경력전환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력전환 과정과 요인은 물론 그 기저의 일반적인 원리 등을 밝혀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환학습은 딜레마적 경험을 하게 된 개인이 이성적 담론과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본래 갖고 있던 신념, 전제들이 변화하는 학습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을 졸업한 성인들이 자신의 관심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변화했음을 성찰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학습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기존의 익숙한 분야를 떠나 새로운 분야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찾는 경력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을 거친 이들의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한다.

2. 음악 대학의 진로직업교육

음악 대학에서는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은 졸업 후 취업의 성공과 직결되며,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그 어떠한 시기보다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Guay et al., 2006; Jones, 1998).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개인 레슨, 반주, 연주 등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음악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Choo & Choi, 2018). 이러한 현실은 음악대학 재학 시 학생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대생들의 직업정보 탐색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주희선(Chu, 2013)의 연구에서는 73.1%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직업 외 다른 직업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음대생들의 직업에 대한 관심의 폭이 매우 좁다고 밝혔다. 또한 음대생들이 취업준비에 있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으며, 학교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취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는 별개로, 순수 음악 분야를 넘어 음악 산업 전체로 확장하여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

음악 산업 내에서만 해도 연주나 창작 이외에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에 대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Jung, 2016).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 전공자들은 전통적인 음악 진로 이외의 직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로의 취업 또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과 그 이후의 경력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음악전공자용 진로장벽검사도구개발을 위한 연구(Jung, 2020), 음악 전공자 관점에서 바라본 직무 분류에 관한 연구(Jung, 2014),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을 조사한 연구(Chu, 2013) 정도가 실질적인 직업적 관점에서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선택과 경력개발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 그 중에서도 체험을 연구하기 위한 질적연구방법이다(Van Manen, 1990). 철학인 현상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연구 방법으로 참여자의 경험적 자료를 중요시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크레스웰(Creswell, 2005)에 따르면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 혹은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체험과 그 의미를 기술하며,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중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한다. 자연과학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된 현상학은 ‘스스로 드러냄’을 의미하는 어원의 의미에서 볼 때 선입견 혹은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 없이 경험의 근저에 깔린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Lee, 1996).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이 가진 가치와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 삶과 지각의 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참여자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Park, 2007).

현상학은 인간의 행위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접근으로는 인간의 경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의 경험의 의미에 관심을 두고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Lee, 2014). 사태 자체는 현상학 이념의 근원이며 경험의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는 이론적이 아닌 경험적 세계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Kong, 2004).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체험한 현상의 본질과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던지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혀내고 기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경력을 전환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러한 전환 경험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본다.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우선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건반악기, 관현악 등 기악을 전공한 음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음악 중 기악이 작곡, 성악 등 그 외 전공과 비교하여 악기의 시작 시점, 입시를 위한 실기 준비 기간, 연주 및 콩쿠르 등을 위한 연습량 등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직업적인 음악활동을 하다가 생계를 목적으로 다른 분야로 직업을 전환한 사람들 중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본 연구에 제공하기를 수락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연구자의 지인들 중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는 총 14명으로 인터뷰를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만나기를 정중히 거절한 1명과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된 경력 사항이 연구자에 의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2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1명이 연구참여자에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 11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information

ID	Age	Gender	Started music	Major	Education	Previous job	Current job
1	30	F	7	Organ	B.A.	Piano instructor	Performance marketing
2	36	F	6	Violin	B.A.	Piano instructor	Barista
3	39	F	6	Piano	M.A.	Music magazine journalist	A foundation's talent management team member
4	29	F	7	Piano	B.A.	Piano instructor/ Jewelry designer	Web developer
5	37	F	6	Piano	B.A.	Performance promoter	Publisher contents manager
6	37	F	5	Piano	B.A.	Performance promoter	Running a tea company
7	42	F	7	Violin	M.A.	Performance promoter	Startup service operator
8	27	F	8	Piano	B.A.	C Orchestra's performance manager	B foundation's management support team member
9	38	M	9	Violin	B.A.	Stage manager/ Coffee shop manager	Sales and marketing
10	36	M	8	Piano	B.A.	Piano instructor/ Accompanist	Running a company
11	41	M	11	Clarinet	B.A.	Piano instructor/ Stage manager	Video filming & producing

면담은 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심층면담조사(In-depth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면담 약속을 잡을 때,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을 확인하여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Zoom 회의 등 비대면 화상 전화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면 면담 5명, 비대면 화상 면담은 3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전화 면담 방식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설명했던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등을 면담 전 다시 설명하였고, 연구의 참여에 대한 사항, 필요 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참여동의서 서명을 통한 동의를 얻었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해 녹음을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반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1인당 1회씩 실시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39분, 평균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 최초 심층면담 이후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중 1명이 저자로 참여한 책¹⁾을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보충 자료로 참고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기록 및 녹음본을 활용하여 전사작업을 진행하였고, 전사 내용으로 확인이 힘든 연구참여자의 표정,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 전체적인 면담 분위기 등은 면담 진행 시 작성한 현장 텍스트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부분은 연구참여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자료 분석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은 면담과 동시에 필드노트를 작성하며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주로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마무리한 후 녹음본을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녹취록을 정독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음악 전공 및 졸업 후 경력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한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들’, 즉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단어 혹은 구절들을 선별하여 코딩하고 분류 및 통합을 통해 큰 주제나 범주를 묶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진행한 자료 분석은 콜라이찌(Colaizzi)의 분석절차(Crotty, 1996)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료 전체를 검토하는 단계로 연구참여자나 진행한 면담 녹취록을 들으면서 빠짐없이 전사한 내용을 모두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둘째, 전사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는 단계로 내용을 하나씩 다시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추출하였다.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들을 주제들의 무리들로 묶음으로써 구성된 의미들에 하위주제(Subthemes), 주제(Themes), 주제 모음(Theme clusters)들을 조직하였다. 넷째, 주제 모음에 대한 ‘포괄적 기술’을 시도하였고, 이를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근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꾸었다. 다섯째, 2명의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견해를 받는 참여자 확인 작업(Member checking)을 통해 기술과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1) 연구참여자가 졸업한 A예술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기록한 책

3. 연구의 신뢰도와 윤리성

질적 연구에 있어 질적 분석과 연구 결과가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Park, 2007). 질적 연구에 있어 신뢰성은 결과와 결과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면서 동시에 학습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연구를 말한다(Roh,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처럼 연구자의 경험이 아닌 타자의 경험 현상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위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의 절차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기술한 내용을 보여주는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고자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전공, 경력, 면담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최대한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했으며, 음악 전공을 하고 경력 전환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경력이 면담 시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판단증지를 통해 최대의 연구자의 편견을 버리고,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음악을 전공한 연구자가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곡해하지 않고,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짐작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면담과 분석을 진행할 시 끊임없이 경계하며, 의문이 드는 사항에 있어 연구참여자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IV. 연구 결과

벤 매넨(Van Manen, 1990)에 따르면 현상학의 본질적 주제들은 ‘경험에 관한 구조’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화하고 분석하여 구조화한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 전환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Table 2> Essential subjects & subtopics

Essential subjects	Subtopics
Deciding not to live as a performer	Becoming aware of oneself
	Thinking and making a decision for oneself
Finding another way	Finding a desire for a stable life
	Learning constantly and seizing opportunities
Starting a new job	Unleashing one's repressed curiosity
	Finding own strengths
Developing a new career as a music major	Overcoming prejudice against music majors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with music

1.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기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끊이지 않는 연습과 레슨, 실기시험은 물론 콩쿠르(경연대회), 교내·외 연주 등 유학 혹은 대학원 진학과 같이 연주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성적과 이력을 쌓기 위한 경쟁을 치른다. 우리나라 음악 대학의 교과과정은 연주자를 키워내기 위해 실기 과정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Jung, 2020), 연구참여자들은 실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전공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였고 차츰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과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1) 자신에 대해 자각하기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이후의 진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것은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였다. 연주자로서 오르고 싶은 경지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자신이 그 곳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자각, 그리고 ‘과연 나는 끝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신의 성공을 점쳤다. 실기와 관련된 스트레스, 무대 위에서 겪는 공포, 유학 등 연주자의 길을 가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 등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평생 음악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이는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며,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졌던 이상이 무너지는 경험이 되었다.

대학교 때는 연주자를 목표로 했었죠. 저는 대학원 졸업 직전에도 유럽 콩쿠르도 나가고 연주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까지 가서 우승을 거머쥐고 이런 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더 잘 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으니깐 나는 그 0.1% 안에 못 드는구나를 느꼈죠.

(연구참여자 7)

애초에 저는 졸업할 때쯤 ‘음악을 해서 그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의욕이 없다가 보단 스스로를 인정한 거죠.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는데 이걸 그게 아닌 것이죠.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신의 현재를 자각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다음 진로를 탐색해 나갔다. 음악을 전공한 이후의 진로가 비교적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계기로든 연주자, 대학 교수 등의 꿈을 품고 해외 유학을 당연한 목표로 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해 온 악기를 더 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당사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경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뼈아픈 자각을 통해 내린 결정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그간 해온 시간과 노력이 아까울 수는 있으나 열심히 했기에 미련이 없고,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다는 ‘후련함’을 느꼈다.

2)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공 과정 중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쟁, 무대 공포와 같은 심리적 힘듦과 일정 시간 이상을 실기에 써야 하기에 다른 관심사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실력과 처한 현실을 자각한 이상, 연주 이외의 다른 길을 찾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다. 연주자 양성을 위한 대학 커리큘럼은 연주자 이외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정보와 도움이 될 수 없었기에 필요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는 음대 외부에서 스스로 얻어야만 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진로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다(Lee & Jang, 2014)고 볼 수 있고, 교내 취업 관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스스로가 그런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에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기대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연구참여자일수록 현실을 직면하자마자 스스로 다른 진로를 찾아 도전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했다.

당연히 연주해야 하고 유학가야 하고. 저도 그게 그 사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유학 다녀오셨는데 자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취업상담센터가 학교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닐 때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연구참여자 1)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완전한 예술가의 길로 갈 확률이 크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고, 열정이 식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공을 살려서 일은 하고 싶으니까, 공연 기획을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이 전공과 진로에 대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 전공 과정에 있어서 힘든 점이나 극복해야 했던 혼란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혼자 고민해서 결정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음악을 하는 환경 안에서는 주변의 대부분이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동료이자 동시에 경쟁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자신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를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말한다 한들 이걸 이해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동기들끼리는 그냥 힘들다, 연습하기 싫다 정도의 불평을 하는 것이 전부였고 딱히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연구참여자 4)

힘든 걸 털어놓은 상대는 없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처음 털어냈던 것 같아요. 그 때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지난 시간이 되게 많이 서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이미 진행된 연구들에서 음악 전공자의 진로장벽 문제에 대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들의 진로 관련 이슈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짓기보다 교과과정 및 음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Jung & Choi, 2013, 2014)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들의 진로 문제는 단순한 취업을 논쟁을 떠나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화된 문제(Jung, 2020)이며, 공연에

술 분야 기획 직무의 경우 개인이 비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진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h, 2017).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로 교육은 취업 및 직업탐색 교육 등의 외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체성, 가치 탐색 등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Kee & Sung, 2012)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음악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진로 교육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다른 길을 찾기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사실 음악산업 분야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가 존재한다(Baskerville & Baskerville, 2012). 하지만 연습과 레슨의 반복인 음대 재학생이 그러한 삶의 테두리 밖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연주자나 대학 교수, 음악 교사 이외에 다른 직업군으로의 진입에 관해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정식적인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며, 학교를 다니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도 실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연구참여자들이 경력을 전환하기 이전에 했던 일은 대부분 레슨(개인 혹은 학원)과 공연 관련 업무(공연기획, 무대감독)였다. 레슨은 전공자들이 졸업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로써 일정 조율이 비교적 자유로워 연구참여자들이 경력전환을 준비할 때에도 생계를 위해 가장 많이 했던 일이다. 또한 초기 진입이 다른 업계에 비해 어렵지 않고 전공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공연 업계에서도 많은 전공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기획, 무대감독 등의 업무로 이 업계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연봉, 일하면서 느낀 업계의 한계를 이유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다.

1)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 발견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에도 레슨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생계유지는 물론 스스로가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불규칙한 일정이 일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등을 가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를 깨달으며 레슨을 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여 경제적으로나 일상에서 안정성을 가져다 줄 일자리를 찾았다.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5-6시간 정도

짧게 일하고 불규칙적으로 나가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안되더라고요. 제 성향상 루틴한 생활이 맞고 조직생활도 맞는 사람이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 나가면서도 직장 다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

돈을 벌어야 하니까 레슨을 구해지는 대로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오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4-5년씩. 애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했을 때보다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라 편하고 좋아요. 안정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2)

공연장 안내원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다 국내 연주 단체의 공연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연구참여자 8은 공연기획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며 성장하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과도했던 업무량과 그에 비해 적은 월급, 업계의 불안정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결심했다.

한 연주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는데도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중략) 공연기획사에서 일하는 선배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보면 대부분이 체계가 없는 것 같고. (중략) 공연 일 하면서 힘들었던 게 사람이 제일 그랬지만, 하는 업무에 비해 박봉이라는 것도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8)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인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여유로움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이유로 경력전환을 결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겠다.

2) 끊임없이 배우며 기회를 잡기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 과정에서 부모, 친구 등 주변인들의 추천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새로운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음악 전공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때 인적 네트워크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새로 하게 된 업무에서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배우는 시간

을 거치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친구나 지인, 부모님의 추천은 물론 취업 준비 중 알게 된 인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업무와 조직 적응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음악 관련된 번역서를 냈어요. 올해 1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 쪽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노무사 이런 쪽. 번역 끝나면 그 쪽으로 공부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연습을 안 하는 대신 시간이 생기니까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회사를 운영할 때 저도 직원들이 하는 일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코딩을 배웠죠. 퇴근하고 학원도 다니고 독학으로도 하고.
(연구참여자 10)

3.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새로 접한 분야의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부족한 면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호기심과 다양하게 갖고 있는 흥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음악을 전공했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전환한 업무와 관련해 소위 말하는 ‘스펙’이 없어 음악 전공자에 대해 면접관이나 직장 동료들이 갖는 편견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다. 현실의 장애물들을 특유의 끈기와 도전 정신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무수히 치른 실기 시험과 무대 연주 경험은 이력서에는 남길 수 없는 ‘경력’으로 남았다.

1) 억눌러왔던 호기심 펼치기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전공하며 발현시키지 못했던 본인의 성향을 새롭게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악기에 몰입하여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삶에서 탈피한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호기심을 왕성히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악기를 할 때 ‘딴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그런 지적을 듣다 보니 제 호기심이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되게 눌러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요. 그런데 이 분야에 와서 제일 좋은 건 제가 하고 싶은대로 새로운 걸 배우고 해도 된다는 점. 음악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막 탐구하도록 냅뒀으면 음악을 그만큼 탐구하면서 살았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연구참여자 7)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이라 순환보직이 정책인 회사예요. 언론홍보를 하다가 여기 인사 분야로 오게 됐어요. (중략)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한 우물만 깊게 파고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회사 정책 자체가 순환보직이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2) 자신만의 강점 찾기

경력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본 연구참여자들은 가장 첫 번째 요소로 ‘끈기’를 꼽았다. 반복적인 연습으로 더 나은 연주를 하기 위해 다져온 시간 속에서 근성을 갖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일을 할 때도 보인다는 것이다. 연주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일을 하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참고 노력했던 끈기는 연구참여자들의 강점이 되었으며 이후 경력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음악을 했던 게 늘 저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배운 게, 음악적인 것이나 삶의 태도 같은 것들. 인내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끌고 온 것,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음악이 도움이 된 건 끈기, 인내. 누구보다 힘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음악은 진짜 혼자와의 싸움인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연습을 한다는 게... 그게 뭐 엄청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하나 연주하려고..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는, 그 노력을 붓는다는 끈기는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2)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오랫동안 했던 일을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것 또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음악을 전공하고 경력전환을 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용감함이 새로운 일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집날 게 없어요. 어떤 새로운 게 와도. 악기를 하는 과정에는 끝없이 해도 완성이라는 게 없고 그런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경험, 또 그렇게 오래 한 것을 제가 그만뒀잖아요. 그만뒀다고 죽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건너가는 데에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어떻게 보면 저는 음악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게, 그걸 하면서 내가 수많은 극복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때, ‘하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 힘든 것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4. 음악 전공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기

성장기 때부터 지속해 온 악기 연습이 남긴 습성과 음악을 전공하던 학생에서 연주자의 길을 포기한 음악 전공자로 남기까지 지내온 시간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지금은 음악과 관계없는 업무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시, ‘음악을 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삶의 짧지 않은 시간을 연습과 연주를 하며 살았던 것을 일컫는 표현으로 단순히 음악을 ‘전공했다’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일반적인 조직의 관점에서 음악 전공자들은 채용 절차에서나 입사 후 업무를 함에 있어 전공은 극복해야 할 편견의 대상이자 독창성을 가진 인재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경력전환 이후에도 균형 있게 이어가고자 했다.

1) 음악 전공자에 대한 편견 극복하기

새로운 일에 도전함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전공은 서류상 불리한 요건 중 하나였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갖고 있는 음악 전공에 대한 편견이 면접 때 질문으로 연구참여자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신기함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레슨과 같은 일은 분명 꾸준히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사항에 한 줄도 넣지 못하며,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도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며 극복하고자 했다.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방해가 되는 점은, 이직할 대나 입사 때 전공이 너무 무관한 전공이다 보니까 뜬금없잖아요. 광고 쪽은 광고학과나 언론 관련 전공이 많은 데 저는 뜬금없이 예체능이니까 그게 좀 불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좀 쉬다가 광고 업무 쪽 교육도 2달 정도 받아봤어요. 교육 받고 면접을 몇 군데 봤는데 음대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에 취업 연결은 안됐어요.

(연구참여자 8)

2) 음악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연구참여자들은 경력전환 이후에도 음악을 했던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음악과 자신을 연관시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레슨과 공연 프로젝트 일을 병행했을 시기에 만났던 연주자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훗날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일에 역할을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3은 연주를 하지는 않지만 음악 관련 책 번역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음악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4의 경우, 웹 개발을 하며 예술을 경험한 자신의 경력이 크리에이티브한 분야의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느꼈으며 추후 예술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업무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음악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좋다고 많이 얘기해요. 어쨌든 저는 연주를 하지 않지만, 덕분에 음악을 잘 아는 사람으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려 다닐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더 잘 아니까. 그것도 되게 복이다. 많이 즐기고 살 수 있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연구참여자 7)

지금 연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음악을 그만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악기를 한 사람들은 음악과의 관계가 다른 전공처럼 그냥 대학교에서 4년 공부한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은 한 분야에서의 좌절 혹은 패배를 경험한 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한계 혹은 제한적인 분야 내 진로를 자각하고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면서 첫번째 진로 전환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레슨, 공연기획 등의 일을 하며 안정성을 중요시하거나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스스로를 깨달으며 다른 분야로의 경력전환을 경험하게 됐다. 경력전환 이후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악기를 다뤘던 음악 전공자로서 지닌 끈기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했던 음악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더 이상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아도 지속되고 있는 음악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V. 논의 및 시사점

2017 콘텐츠 교육기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문적인 음악 전공자를 배출하는 전문 대학 이상의 국내 음악교육기관은 125개이고 졸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산업 인력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와 음악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음악 대학의 교과과정은 수십년 간 연주자를 키워내기 위한 심화된 실기 과정에 맞춰 설계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Jung, 2020).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는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획일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Kee & Sung, 2012).

또한 음악 전공을 위해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선택하고 다른 계열의 전공자들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실기 연습과 각종 경쟁에 노출되는 음악 전공자들은 실제로 공부를 마친다 하더라도 전문 연주자의 길로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Choo & Choi, 2018; Jung, 2016; Jung & Choi, 2014). 직업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예술과의 융합의 필요가 많아지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 흐름에 맞지 않는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진로교육 또한 교과 과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전문 음악인을 수용할 사회적 기반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Lee & Jang,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대생들의 절반 정도는 직업으로 연주자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음악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직업 외 다른 직업에는 무관심하고, 직업에 대한

관심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분석되어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Chu, 2013).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전환에 앞서 음악 전공자들은 음대 입학 후 현실 자각과 성찰을 바탕으로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주자 양성에 치우쳐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직업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적은 특징을 가진 음악 대학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실기 이외의 다양한 학문이나 외부환경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특히 다른 분야의 진로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Jung, 2016). 이러한 어려움은 음악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Choi & Chung, 2009; Chung & Kwon, 2008), 반복적인 실기 경쟁의 삶을 견뎌야 하는 연주자의 삶에 대한 재고가 그 중 하나다. 음악 전공자들은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더욱 현실적인 고려를 하게 되며 이는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평생 연주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을 성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메지로우의 전환학습 단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메지로우는 경험(experience),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이성적 담론(rational discourse), 행동(action)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가정, 신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다(Kang, 2017).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 선택과 학업의 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연주자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느끼고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와 신념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려는 결심을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방식(way of knowing)을 바꾸는 것이다(Snyder, 2008). 이는 자신의 장점과 신념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는(Park & Jo, 2010) 전환학습의 두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음악 전공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다른 길을 모색하여 경력전환의 기회를 잡으며 새로운 의미구조를 갖는 전환학습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근무시간이 많거나 불규칙하다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으며,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대한 어려움을 타 전공 대학생들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Chu, 2013)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도 직업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었다. 이는 수입과 생활의 안정성을 모두 포함하며, 기악 레슨에서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공연 업계에서는 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업무의 성장가능성이 없음을 경력전환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경력전환 과정에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타 분

야의 일들을 찾고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의 습득을 위한 학습을 지속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음악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음악을 전공하며 억눌려 왔던 자신의 호기심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끈기와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서 경력을 개발했다. 또한 오랜 시간 하나의 악기를 연습하고 무대에 섰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동시에 그렇게 도전해 온 연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자각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것은 하나의 악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과정과 함께 레슨, 실기시험, 무대 연주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연습 과정을 확인 받고 완성된 결과물을 검증받는 과정을 동시에 겪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은 이러한 전공 과정 안에서 악기에 대한 몰입을 위해 억눌렀던 호기심을 펼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감과 끈기를 갖고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일을 당면했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태도의 결과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의 단계 중 세번째와 네번째 단계를 포괄한다. 세번째 단계인 이성적 담론(rational discourse)은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비판적 성찰에 의해 스스로 변화,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가는 단계이다(Kang, 2015). 성인학습에서 혼자만의 성찰로는 오랜 시간 형성된 사고의 틀을 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학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악 전공자들의 경우 이 단계에서 타인들과의 상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이는 음악을 전공하면서 극복해야 했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온 습성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등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악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실기 수업들은 동료, 그리고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높여주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전공 실기 레슨은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Park & Ra, 2020).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교수는 전문영역, 즉 연주자로서의 기량 증진과 유학 등의 진로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지도 받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드문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action)으로 새롭게 발견한 관점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Kwon, 2017).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체화(體化), 육화(肉化)하는 활동으로 보는데(You, 2006),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이론에서 위기로 인식되는 사건 혹은 결정적인 경험에 직면하면서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념, 태도 등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의미관점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Jeon & Lee, 2017). 또한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은

자발적으로 삶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며, 보통 직업과 동료의 손실, 경제활동에서의 소외, 실패 등으로 인식되어 왔던 기존의 진로 변화(Newman, 1995)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음악 전공자들에게 경력을 전환하는 활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으며, 개성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과정(Dirkx, Mezirow & Cranton, 2006)과 다름 없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음악 전공자라는 편견을 극복하며, 음악 전공자로서의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었다. 경력전환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 행위와 회사 생활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음악을 전공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느끼고 있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구직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면접에 임하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과 입사 후 업무에 필요한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낯선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학습과 노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전공했다는 ‘경력’을 통해 타 분야에서 다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음악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음악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진로교육과 관련해 얻게 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음악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실기 수업, 음악 이론 등 연주를 위한 지식과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는데(Jung, 2017), 이러한 외적 준비 외에도 연주자 혹은 음악을 지속하는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준비를 함에 있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내적 준비에도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직업진로교육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수진의 지도 또한 필요하다.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다시 살피볼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 대학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연주자 이외의 다른 진로를 모색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폐쇄적인 음악 대학 분위기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당 분야의 접근성 부족, 정보 부재의 현실적 어려움과 취약함은 음악전공자들의 진로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Seo, 2008). 교육과정의 개선과 더불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통로 확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과 음악 산업 현장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사회적 기반은 미미하며(Lee & Jang, 2014), 연주나 창작 이외에 다양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산업 현장

에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Jung, 2016). 음악 전공자들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해 산업 측면에서 음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의 입장에서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방안과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을 고찰하여 그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에 대해 탐구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경력전환을 경험한 음악 전공자들의 전공 과정과 타 분야로의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획일적인 방식의 교육과정과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음악대학 내 진로 지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2009년에 음악 전공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논문이 처음 출간되었고, 한 편도 연구가 되지 않았던 2010년과 2011년 이후에도 매년 10편 미만의 논문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Choo, 2019)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음악 전공자들이 타 분야로의 경력전환을 한 경험의 분석을 토대로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의식의 다양화 가능성과 분야와 무관한 음악 전공자들의 실무 능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셋째, 음악 전공자들의 폭넓은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음악 산업 내 직무 연구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시사점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대와 직무 연차의 다양함으로 인해 경력전환 이후 경험이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령대 혹은 세대에 따라 경력전환 후 일정 연차 이상이 되었을 때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더 세분화된 조건 하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성비의 고른 확보가 되지 못해 남성과 여성에 있어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 및 경력전환 경험에 대해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남성들의 군입대로 인한 특수성과 진로 선택, 경력 전환에 있어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진 면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충분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여성들과는 다른 남성들의 경험으로 연구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외의 후속 연구로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개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 대학의 교과 과정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직업을 학술적으로 고찰하여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askerville, D., & Baskerville, T. (2012). *Music business handbook and career guide* (10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hang, W. (2011).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oul: Hakjisa.
- Choi, J. S. (2014). An autoethnography of a former elite athlete's identity change during the career transition.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7(1), 63-102.
- Choi, Y., & Kil, H.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career transition determinant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2), 1-21.
- Choo, S. H. (2019).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s of 21st century music majors in Korea.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 11, 13-17.
- Choo, S. H., & Choi, J. H. (2018). Analysis of career choice and preparation behavior of instrumental major in Korean universities. *Research in Music Pedagogy*, 19(2), 197-219.
- Chu, H. (2013). Investigation on the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vo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1(3), 107-120.
- Chung, W. K., & Kwon, S. (2008). Comparison of the curriculum and operation of the piano pedagogy between the graduated courses in the U.S. and those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107-149.
- Creswell, J. W.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Crotty, M.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Melbourne: Churchill Livingstone.
- Dirkx, J. M., Mezirow, J., & Cranton, P. (2006). Musings and reflections on the meaning, context, and process of transformative learning: A dialogue between John M. Dirkx and Jack Mezirow.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4(2), 123-139.
- Green, L., Hemmings, B., & Green, A. (2007). Career change and motivation: A matter of balance.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6(1), 20-27.
- Guay, F., Ratelle, C.,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 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 Hall, D. T. (1976). *Careers in organizations*. Glenview, IL: Scott, Foresman.
- Han, S. H., & Lim, S. Y. (2016). Reconstruction of the vocational identity of two

- vocational a narrative inquiry into a high-professional retiree's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and transformative development: Focused on Erikson's theory of human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 7(3), 81-107.
- Hong, J. Y. (2018). A study of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2), 265-290.
- Jeon, S., & Lee, H. W. (2017). Exploring the process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rough participation of adult cancer patients in learning communitie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2), 27-56.
- Jones, L. K. (1998). The career decision profile: Using a measure of career decision status in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7(2), 209-230.
- Jun, H. Y., & Son, E. Y. (2014).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transition life histories of 2 fifties male company workers: Between a maintaining subsistence and self-realiz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2), 675-694.
- Jung, H. H. (2014). Distinguish the job types in viewpoint of music major.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7, 1-14.
- _____ (2016). *Analysis of major choice, career choice and career barrier on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_____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ing music career barrier inventory for university music major stud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4, 23-41.
- Jung, H. H., & Choi, J. H. (2013).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161-183.
- _____ (2014).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between music and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9, 161-174.
- Jung, J. H. (2009). Rethinking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and multicultural educational theor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85-107.
- Jung, J. Y. (2017). A case study of autobiographical learning for music majors and

- implications for career guidance.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7, 195-219.
- Kang, K. (2017). Exploration of the adult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ased on the transition learning theor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5), 169-197.
- Kang, W. R. (2015). *Examination on effect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ransformative learning based environment-friendly habit camp*.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ee, Y. W., & Sung, J. E. (2012). A study examining the need of vocational education through curriculum of music majors.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5, 125-147.
- Kim, N., & Jin, S. (2013). Career adaptabilities as experienced by mid-career adults in career transition.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8(1), 28-53.
- Kim, Y. J., & Na, S. I.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urnover experiences and transformative learning process of corporate executive secretar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1), 159-187.
- Kong, B. H. (2004). Phenomenology in nursing research.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23, 151-178.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Survey on the demand for contents institution and human resuorces* (KOCCA Research Report 17-15). Naju: Author.
- Kwon, I. T. (2017). *Methodology of lifelong education*. Paju: Kyoyookbook.
- Lee, E. M., & Ryu, K. U. (2017). An exploration of the reemployment process of retired middle-aged men. *Journal of Social Science*, 28(2), 59-78.
- Lee, I. K. (2020). *Qualitative case study of career transition and transformative learning process for married women on career break through a vocational education: Focused on participants in the career coach training course*.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K. (2006). The investigation of new strategies for the profession at collegiate schools of music: Focused on the violin performance majo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89-117.
-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studies*. Seoul: Hangilsa.
- Lee, S. M., & Jang, G. J. (2014). A correlation between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undergraduate music major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2), 47-65.

- Lee, S. Y., & Park, S. Y. (2012).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of full-time female executive assistants in large corporation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1(3), 29-56.
- Mezirow, J. (1981). A critical theory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1, 3-24.
- _____.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_____. (2000).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The Jossey -Bass Higher Adult Education Se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n, K., & Lee, S. Y. (2020). A study on the grounded theory through the career selection process of contemporary music majors. *Journal of Popular Music Contents*, 4(1), 63-73.
- Newman, B. K. (1995). Career change for those over 40: Critical issues and insi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1), 64-66.
- Park, D. J., & Won, Y. S. (2014). Career transition process of former Korean national ice hockey playe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7(2), 27-53.
- Park, J. Y. (2007). *Experience of committing suicide of elderly suicide survivors - The flying from a quince knob*.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 Park, K. J., & Lee, K. H. (2011). Analysis of causal model of career transition professional cycle racer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2(2), 35-52.
- Park, S. M., & Jo, H. S. (2010).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learning experience based on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4), 191- 215.
- Park, S., & Ra, J. (2020). Analytical study on the impact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1-27.
- Roh, H. S. (2012). *A case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transformation of meaning structures through learning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Roh, K. R. (2017). A study on the initial career developing process of women who finished a performance planning training course provided by the women reemployment support center.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12(2), 1-33.
- Seo, J. Y. (2008). *Analyse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insecurity and the*

- standard of selecting workplace of senior students*. Master thesis, Kyunggi University.
- Shin, J. Y. (2018). *A study on career transition to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Van Manen, M. (1990). Beyond assumptions: Shifting the limits of action research. *Theory into Practice*, 29(3), 152-157.
- Wee, Y. E., & Lee, H. S. (2015). Analysis of transformative action of learners in outplacement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7(2), 47-71.
- Yang, A. N., & Jung, C. Y. (2011). A study on job transition of vetera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1-24.
- You, Y. (2006). 'Complexity' of a 'simple' learning: Complex learning systems through the lens of complexity science.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2), 53-96.